



제6회 임직원 수련 및 단합대회 성료

전남 담양 성암야영장에서 2백여명 참가



본회는 지난 6월5~6일 1박2일 동안 전남 담양군 성암야영장에서 임직원을 비롯한 회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임직원 수련 및 단합대회를 가졌다.

임직원의 유대를 강화하고, 양계인들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협회조직 확대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금년은 광

주·전남지부가 주관하였다. 만찬회, 오락회와 등산대회, 계란껍질벗기기, 계란나르기, 풍선터트리기 등 게임을 각 도지부, 경기, 중부 등 8개팀으로 각각 나누어 진행되었다.

각종 게임에서 두각을 나타낸 포천, 운천, 가평분회로 구성된 경기A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중부A팀(천안채란분회) 준우승, 광주·전남지부 장려상, 전북지부가 공로상을 받았다. 장기자랑에서는 운천채란분회의 장인심씨가 1등을 차지했다.

또한 광주·전남지부 김복천 육계분과위원장, 경북지부 박배현 운영위원장, 포천분회 임성진 부분회장, 부산·경남지부 김도만씨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행사는 회장단의 협찬으로 개최되었으며 K.F.C, 성우식품, 제일사료, 우성사료, 미원, 제일화학, 대한제당, 153유통에서 협찬하였다.

한편 내년 임직원 수련 및 단합대회는 포천분회가 주관하기로 하였다.

양계산물 의무비축 건의 생산비의 80%선에서

본회는 육계와 계란가격의 폭락으로 양계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수매대상업체들로 하여금 의무비축을 실시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농림수산부에 요청하였다.

최근 양계산물가격이 폭락을 했음에도 수매비축 대상업체들은 적극적인 수매비축을 시행치 않고 추세를 관망하고 있거나, 자율수매를 한다해도 극히 소량을 영업적 차원에서 수매하며 자체 조합원, 계열농가 생산분만 수매하고 있으므로 전체 생산자나 정부가 의도하는 데로 효과를 거양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정부에 건의하게 되었다.

건의내용은 닭고기와 계란가격이 생산비에서 20% 이상 하락하면 의무적으로 비축하여 생산비에서 80% 이상 회복할 때까지 무제한 수매비축해야

한다. 또 정부에서 선정한 수매대상업체가 일정지역에 편중되어 거리, 도계작업량 등 제반여건으로 전국 생산자가 평등하게 수매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수매대상업체가 없는 전남, 경남, 충남, 충북, 강원도에 추가로 업체를 선정,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본회가 추가요청한 자금은 닭고기 25억2천만원(180만수분), 계란 7억4천1백만원(1천6백만개)이다. 또한 수매비촉 사업은 장기보관 후 방출해야 하므로 품질저하 등 위험부담이 크고, 연리 8% 1년 상환의 융자금으로 민간업체가 감당키 어려우므로 금리를 무이자로 해야 하고, 사업결과 정산후 손해를 정부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매비촉을 위한 생산비의 80% 수준은 육계가 kg당 740원(925원의 80%), 계란이 42원(52원의 80%)로 제시하였다.

농림수산부 업체에 수매비촉 지시 계란수매자금 확대지원

농림수산부는 양계산물 가격의 큰폭 하락으로 수매자금 지원업체로 하여금 육계와 계란을 수매비촉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계란수매 자금을 확대 지원키로 하는 양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하였다.

지난 4월23일 양계산물 수매자금 32억6천1백만원을 배정하였다. 닭고기 수매자금으로 2개 양계조합과 3개 계열화업체에 25억2천만원, 계란수매자금으로 4개 양계조합에 7억4천1백만원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계란의 경우 91년도 수요예상량 0.5%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 9억2천4백만원을 증액키로 하였다.

한편 사육조절을 위해 생산자 단체가 저능력 종계 및 노계의 조기도태와 병아리 생산 및 입추자제를 유도하도록 했다. 내무부와 협의하여 반상회보에 계란소비 협조자료를 수록토록 하며, 양계조합

과 연계 계란을 염가에 공급하는 특별판매를 추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가공업체에 닭고기 사용 확대 요청 수입 칠면조고기 사용 억제토록

본회는 지난 17일 육가공업체에 닭고기 사용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최근 노계가격이 백색산란계 300원, 갈색산란계 650원, 종계 1,100원까지 하락하여 양계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육가공업체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같은 가격폭락은 생산과잉과 사회불안에 따른 소비위축에 원인이 있으나 무엇보다 육가공업계에서 칠면조고기 등 육가공 대체원료를 무분별하게 대량 수입 사용하는데 있으며, 특히 노계가격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폭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노계육을 주원료로 가공하던 제품을 전량수입 칠면조고기로 대체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내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육가공업계에서 △육가공제품에 대한 닭고기 사용 확대 △닭고기를 원료로 하는 육가공 제품에 수입 칠면조고기 등 대체육 사용 중단 △칠면조고기 등 육가공 대체 원료육의 무분별한 수입억제 △닭고기(노계육)의 수매비촉 등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육가공협회는 회원사로 하여금 국내 농산물 이용 차원에서 국내산 닭고기를 최대한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최근 돼지고기가격 상승으로 육가공 주원료인 돼지고기 대신 원료사용의 다양화로 닭고기, 칠면조고기, 토끼고기 등을 선택 사용하고 있겠으나 가급적 수입 칠면조고기 등의 사용을 억제하여 국내 양계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종계 생산성저하 대책 세미나 개최 질병치원의 생산저하원인 분석



본회는 지난 21일 가축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종계 생산성저하 대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종계의 생산성이 저하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질병차원의 저하원인을 조사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종계업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재홍 연구관이 “종계장 산란저하 원인분석”, 김기석 박사가 “종계장 위생실태 조사”, 박근식 소장이 “질병차원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김재홍 연구관은 생산성 저하원인이 아직 명확히 구명되지 않았으며 계속 연구중이라 밝혔다. 그러나 올인 올아웃을 하지 않은 채 양계장을 계속 운영함으로써 여러 병원체로부터 오염되어 전반적인 생산성 저하가 초래되었다. 또 비위생적인 인공수정도 산란저하의 가능성이 많으며, 모든 종계장에서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항체가 높게 검출되고 있어 이로 인한 2차감염 피해나 생산성 저하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였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7월 병아리 입식 중지키로

6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강석부)가 지난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육계가격이 산지에서 450원까지 폭락하는

등 사상 유래없는 불황 속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였다. 그동안 통계자료에 나타난 병아리 생산능력이나 사료생산량과는 다르게 불경기를 면해 왔으나 이제야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불경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 하였다.

한편 복경기 이후 큰 폭락이 예상되어 병아리생산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7월 한달을 육계사육자들이 병아리 입식을 중단함으로써 부화장의 병아리 생산조절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종계분과위원회 개최 노계전문 도계장 설립 검토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식)가 지난 12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양계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병아리생산 조절을 위해 종계 도태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종계노계가격이 폭락하였고, 그나마 도계시설이 없어 원활한 도태가 이루어지지 못해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노계의 소비확대를 위해 육가공 원료로 경쟁이 되는 수입칠면조육 등 보다 저렴한 가격이 안정적으로 공급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노계를 도계할 도계장이 없어 적기에 도태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노계전문도계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계만을 도계해서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업체차원에서 정부의 협조를 얻어 도계장을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백·갈색란 비교 분석

6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구)가 지난 14일 과천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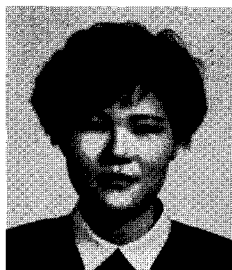
이번 회의는 수의공중보건학회에서 주최한 축산 배설물 처리에 관한 심포지엄을 참석한 후 열렸다.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갈색란의 선호도가 높아 백색란과 차등가격을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백색란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시장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부권에서는 가격차등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산란계 농장에서는 노계를 도태하려 해도 출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의 타개책으로 노계전문 도계장을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한편 오는 10월에 채란인 단합대회를 겸해 개최기로 한 양계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이끌기로 하였다.

본회 광용숙 대리 의원면직 및 신규직원 임용 꼬꼬감별회사 경영위해



△조윤수



△광용숙

본회 총무부에서 20여년간 근무하던 광용숙 대리가 지난 6월30일자로 신병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 수리됨에 따라 의원면직되었다.

지난 72년 가금협회의 근무를 시작으로 양계업계와 인연을 맺었으며 73년 양계관련단체의 통합에 따라 본회가 설립되면서 현재까지 근무해왔다.

광용숙 대리는 적극적인 성격에 검소하고 솔선수범하는 근무 자세를 보여 평소 동료 직원들로부터 모범사원으로 인정받아 왔다. 재직기간 중 77년 협회장으로부터 공로패, 80년(협회장)근검절약상, 82년(협회장)공로패를 받는 등 모범사원 역할로 본회 설립초부터 양계업계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광용숙 대리는 퇴직후 양계분야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평소의 희망대로 육계·산란계·종계분야리 감별전문회사인 「꼬꼬감별」을 경영할 예정이다.

꼬꼬감별 : 주소 도봉구 우이동180-9 19/7
전화 (02)993-4278

한편 총무부의 결원된 인원을 보충키 위해 조윤수(성덕여상졸)양을 지난 6월1일부로 신규채용하였다.

네덜란드·독일 양계산업 시찰단 파견 12일 일정으로 하노버 전시회 참관

본회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회원 및 양계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외 선진양계산업 시찰단 파견의 일환으로 지난 6월23일 네덜란드 양계산업 및 독일 하노버 양계산물 전시회를 둘러보게 될 유럽양계산업시찰단(단장 김윤득)을 14명으로 구성하여 11박12일 일정으로 파견하였다.

특히 시찰단은 네덜란드의 첨단양계산업 및 계란유통 경매장, 양계학교 등을 견학하게 되며, 독일에서는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91국제 양계·양



△김윤득

돈산업 박람회 참관하고 맬릿자동차 케이지사, 빅더치만 자동차 케이지사, 쌀멧 자동차 케이지사 및 각 업체가 안내하는 채란농장을 둘러보고 7월4일 귀국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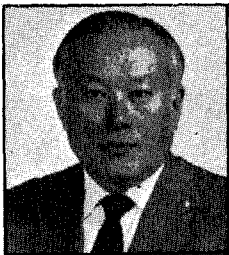
이번 시찰단은 주로 채란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하였으며 네덜란드 방문은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이 후원하였으며, (주)유경(대표 유재홍), 복지농장(대표 박수남), 한국양계연구소(소장 김영환)가 각각 안내를 협조한다.

시찰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윤득(단장, 행운농장), 고기철(협업고흥농장), 변동화(태영기계), 우영모(경주농장), 권기일(금호농장), 이상호(오승농장), 김춘식(보일공업), 박동원(선린농장), 권영택(안성농장), 채선국(대청농원), 박상근(김해농장), 장기식((주)금성 사료), 정문수(신촌사료), 강제명(본회 총무차장)

우보 오세정 교수 별세

건국대 축산대학 오세정(62) 교수가 서울대병원에서 7월 3일 별세했다.



△오세정

'90년 제1차 초생추감별사자격시험 실시 감종감별사에 11명 합격

본회는 지난 14일 민경두병아리감별학원에서 90년도 제1차 초생추감별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내용은 감종감별사가 백색산란계 200수를 18분 이내에 97% 이상 합격해야 하고, 고등감별사는 백색산란계 300수, 육용계 200수를 각 100수 단위로 구분하여 7분 이내에 감별하고 감별 회수별 정관율에 관계없이 백색산란계 99%, 육용계 98% 이상 합격해야 한다.

이번 시험에는 감종감별사에 90명, 고등감별사에 1명이 응시하여 감종감별사는 11명이 합격하였고, 고등감별사는 합격자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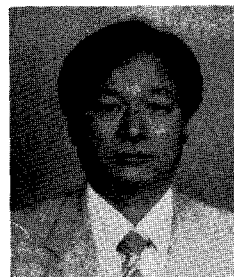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감종 감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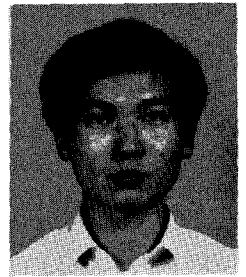
한규혁, 이강식, 이쌍섭, 박성봉, 조영희, 최미경, 이현정, 박승렬, 박준상, 유고은, 전수동

'91. 한국양계박람회 직원 채용

'91. 한국양계박람회 추진위원회(위원장 오봉국)는 7월 1일부로 정희완(전 대한양돈협회 지도부장), 강진기(건국대 농업경제학과 졸업예정) 씨를 각각 채용하였다.



△정희완



△강진기